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투과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별 2길 6번지



전북도는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군산 리마디호텔에서 (주)천보비엘에스와 전기차 핵심부품인 이차전지 전해질 제조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 새만금산단 투자금액 5000억원대

### 개발청 개청 이래 제조기업으로는 최대 천보비엘에스, 도·군산시·개발청 등과 이차전지 전해질 제조공장 설립 투자협약

새만금청 개청 이래 제조기업으로는 최대인 5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가 새만금산단에 이뤄진다. 지난 해 SK전선사업과 GS글로벌 등 대기업 투자에 이은 대규모 투자유치로 새만금이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주목받고 있다. 전북도는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군산 리마디호텔에서 (주)천보비엘에스와 전기차 핵심부품인 이차전지 전해질 제조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천보 비엘에스 이사를 대표이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안종호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과 관계자 등 약 20여 명이 참석했다. (주)천보비엘에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새만금산단 1공구 17만1,000㎡에 2026년까지 5,125억원을 투자해 전기차 핵심부품인 중·대형 리튬전지의 고성

능화에 필수소재인 F전해질(LFSD) 생산공장을 건립하고 470명의 인력을 고용할 계획이다. 투자는 총 2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올 11월에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1단계(2022년~2023년)로 2,185억원 투자와 200명 신규채용, 2단계(2024년~2026년)에 2,940억원 투자와 270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협약을 체결한 (주)천보비엘에스는 충북 충주에 소재한 코스닥 상장기업 (주)천보가 새만금 투자를 위해 설립한 신규법인이다. 모기업인 (주)천보는 이차전지 전해질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으로 삼성SDI 등 국내 3대 이차전지 기업과 일본 파나소닉, 중국 CATL 등 글로벌 배터리 기업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주)천보비엘에스가 새만금공장에서 생산 예정인 F전해질(LFSD)은 (주)천보

가 2017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신물질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 리튬염(LFP) 대비 고출력을 실현할 수 있고 충·방전 수명도 길어지며 부식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세계적으로 생산량이 적고 단가가 비싼 단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 F전해질(LFSD)의 제조원가를 2~3분의 1수준까지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5~6만원/kg → 2~2.5만원/kg) 최신공법을 개발하고, 이를 최초로 적용한 공장을 새만금에 건립할 계획인 것이다. (주)천보비엘에스는 이번 새만금 투자를 통해 F전해질(LFSD)을 대량생산함으로써 기술력뿐만 아니라 가격경쟁력까지 갖춘 첨단 소재기업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주)천보 비엘에스의 새만금 투자는 정부와 지역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친환경 미래차 클러스터(협력지구)가 속도감 있게 조성되고 있는 상황과 미래 성장가능성, 항만을 통한 수출 용이성 등의 입지적 강점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천보 비엘에스 이사를 대표이사는 "전북도·새만금청·군산시의 전폭적인 지원과 새만금의 미래가능성을 보

고 투자를 결정했다"면서 "새만금 공장을 발판으로 이차전지 소재 분야 글로벌 선두기업으로 거듭나,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새만금의 대표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해 SK전선사업과 GS글로벌 등 대기업 투자유치에 이은 이번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새만금이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며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경제의 활력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에 필수적인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핵심소재를 생산하는 (주)천보비엘에스의 투자로, 전기차 클러스터 및 배터리 연관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수출입 물류 증가에 따른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대규모 투자 결정은 경제적 기대효과와 함께 새만금이 전기차 등 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면서 "기업이 가진 세계적 경쟁력과 새만금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연관 산업의 투자유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社 告

##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인간중심·도덕중심·지역중심을 추구하는 전주매일신문사가 바른마음·바른생각·바른행동에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참신한 인재를 초대합니다.

구 분	모집인원	자 격 조 건
지역주재기자(익산)	0명	일간지 근무 경력자 우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 ▶ 접수기간 2021년 7월 31일까지
-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접 수 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서노송동) 문의 063-288-9700(본사총무팀)

전주매일

## ‘해상풍력 일괄 설치선’ 진수

### 군산항 6부두서 세계 최초로 석션버킷 구조 발전기 운송

전북도가 군산항 6부두(CCT)에서 우범기 정무부지사, 정승일 한국전력공사장, 강임준 군산시장, 박상진 한국기계연구원장, 김규선 티에지중공업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해상풍력 일괄 설치선(MMB) 진수식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관련사진 9면) '해상풍력 일괄 설치선(MMB)'은 한국전력연구원에서 총 사업비 340여 원, 공사기간 60개월이 소요돼 건조됐다. 총 중량은 4,060톤(전장 72m, 폭 45m, 높이 5m)으로, 5MW급 해상풍력(1,500톤) 석션버킷 방식의 풍력발전기 1기를 한번에 운송해 설치가 가능 하도록 특수제작된 다목적 일괄 설치선이다. 해상풍력발전기는 하부의 지지구조물과 상부의 풍력발전기로 이뤄져 있으며, 지지구조물의 형태는 해저면에 파일을 박는 고정식과 부유체를 바다 위에 띄우는 부유식으로 나뉜다. 부유식은 깊은 바다에 적합하고 설치비용이 크다는 단점이 있어 연안에서는 주로 항타 장비를 이용한 고정식 공법을 주로 사용한다. 고정식 중에서도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잘 알려진 '석션버킷 공법'은 펌프

를 이용해 내외부 수압차이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무진동 무소음 부유 퇴적물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석션버킷 공법의 해상풍력 발전기는 군산 남방파제 앞 3MW급 해상풍력발전기(1기)와 사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7호)에 설치돼 사남·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건조된 해상풍력 일괄 설치선은 석션버킷 구조의 해상풍력발전기를 운송하는 전용선이다. 기존 고정식 자켓 구조의 해상풍력발전기(5MW급/1기)는 일반 해상 운반선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설치비용은 88억 원, 공사기간은 부분품(하부 구조물 타워 등) 분할 운송과 해상조립을 포함해 90일이 소요된다. 반면, 석션버킷 구조의 풍력발전기(5MW/1기) 일괄 설치선 이용시 설치비용 49억 원, 공사기간은 10일로 37억 원의 설치비 절감과 80일의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어 경제성이 매우 뛰어나 향후 우리나라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전북도는 해상풍력과 관련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산학연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전북지역 풍력산업 활성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유호상 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